보건복지부	보 도 자 료		
	2월 3일(월) 조간 (2.2 12:00 이후 보도)		
배 포 일	2020. 1. 31. / (총 4매)	담당부서	예비급여과
과 장	손 영 래	전 화	044-202-2670
담 당 자	문 달 해		044-202-2667

2월부터 자궁·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(연간 700만 명 혜택)

- 보장성 강화대책('17.8월) 후속조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-
- 자궁근종, 난소낭종 등 부인과 질환 환자 700만 명 혜택 -

□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**2월 1일(토)부터 자궁·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**의 **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**된다.

○ **자궁·난소 등의 이상 소견**을 확인하는 **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**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**자궁근종,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** 위한 **기본적인 검사방법**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**4대 중증질환**(암·심장·뇌혈관·희귀난치)**에 한해 제한적**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.

- **전체 진료의 약 93%가 비급여**로서 **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**하고 **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** 이에 따른 **환자부담이 크고**(연간 비급여 규모 약 3,300억 원) **건강보험 적용 확대요구가 큰 분야**였다.

* 자궁근종, 자궁내막증, 난소낭종 등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에 건강보험 미적용

○ **2월 1일부터**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**자궁·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**되어 **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**까지 **건강보험이 적용**된다.

□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**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**은 **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**된다.

○ 여성생식기 질환의 **진단 및 경과관찰**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**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** 의료기관 종류별로 **평균 4만7400원**(의원)에서 **13만7600원**(상급종합병원)으로 현재 **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**하고 있다.

○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**최초 진단** 시에는 진단(일반)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(30~60%)인 **2만5600원에서 5만1500원을 부담**하게 되어 **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**된다.

○ 자궁·난소 등 **시술·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 초음파**(진단초음파의 50% 수가)의 경우 환자부담이 **1만2800원~2만5700원**으로 **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** 된다.

< 보험적용 이후 환자부담 변화(진단(일반) 초음파 기준) **>**

구분			상급종합	종합병원	병원	의원
보험적용 이전*			13만7600원 (최대 27만 원)	7만8600원 (최대 21만 원)	6만2700원 (최대 17만 원)	4만7400원 (최대 10만 원)
보험적용 이후*	외래	최초 진단	5만1500원	4만1200원	3만1700원	2만5600원
		(경과관찰**)	2만5700원	2만600원	1만5800원	1만2800원
	입원	최초 진단	1만7170원	1만6510원	1만5850원	1만7100원
		(경과관찰**)	8,580원	8,250원	7,920원	8,550원

*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, 2020년 환자부담금 기준
** 시술·수술 후 제한적초음파로 경과관찰 시

○ 예를 들어, **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**가 **자궁내막 용종이 의심**되어 외래로 **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**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**6만2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**하였으나, **앞으로는 3만1700원을 부담**하게 된다.

-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**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**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**6만2700원 대신, 앞으로는 1만5800원을 부담**하면 된다.

○ 이 외 **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**하는 경우, 기존에는 **상급종합병원**에서 평균 **17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**하였으나, 보험적용 이후에는 **7만5400원**을 부담하게 된다.

* 중증환자를 주로 보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단(정밀)초음파 외래 기준

□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**보험적용 범위**는 **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, 난소,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**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**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로 확대**된다.

○ 이후 **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*** 추가적 검사도 **보험이 적용**된다.

*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, 시술·수술 후 효과 판정 시 제한적초음파 1회 인정 등

- **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**를 받는 경우도 **보험은 적용**되며 **본인부담률만 80%로 높게 적용**된다.

□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**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**되던 **여성생식기 초음파**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**연간 약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이**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.

○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**"자궁·난소 초음파는 자궁근종, 난소낭종 등 여성들에게 흔한 질환 검사**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로, **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"**이라고 전했다.

○ 또한 "올해 하반기에는 **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**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<붙임>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완화 예상 사례

붙임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완화 예상 사례

연번	내용
1	하복부 통증으로 **A 의원에** 방문한 한씨가 **외래**진료로 자궁의 기능적 이상을 의심하여 여성생식기-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**기존에는 평균 5만 원**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, **급여화 이후 2만5600원** 부담(2만4400원 경감)
2	월경과다로 **B 병원에** 방문한 최씨가 **외래**진료로 자궁내막용종을 의심하여 여성생식기-일반(자궁내 생리식염수 주입)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**기존에는 평균 10만 원**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, **급여화 이후 4만500원** 부담(5만9500원 경감)
3	무월경으로 **C 종합병원** 방문한 이씨가 **외래**진료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위해 여성생식기-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**기존에는 평균 8만 원**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, **급여화 이후 4만1200원** 부담(3만8800원 경감)
4	이차성징 발달이 완료된 이후에도 초경을 하지 않아 **D 상급종합병원**에 방문한 16세 여아가 **외래**진료로 여성생식기-정밀 초음파 검사 시행 후 여성생식기 기형이 진단되어 **기존에는 평균 17만 원**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, **급여화 이후 7만5400원** 부담(9만4600원 경감)
5	갑작스러운 질 출혈 증상으로 E 의원에 내원한 박씨가 자궁에 혹이 의심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**F 상급종합병원**으로 진료 의뢰되어 입원 후 여성생식기-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**기존에는 평균 17만 원**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, **급여화 이후 2만5160원** 부담(14만4840원 경감)
6	**G 종합병원**에 방문한 윤씨는 난소에 혹이 확인되어 난소절제술을 받은 후 경과관찰을 위해 외래를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**기존에는 두 번의 초음파 검사비용으로 평균 24만 원**(각 12만 원)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, **급여화 이후** 최초 진단 시(진단초음파) **6만400원**, 추가 검사 시(제한적초음파) **3만200원** 부담(총 14만9400원 경감)
7	40세 여성 환자가 질 출혈 등으로 여성생식기 질환이 의심되어 **여성병원**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근종을 진단받고 근종 절제 수술 뒤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, **기존에는 두 번의 초음파 검사비용으로 평균 12만 원**(각 6만 원)을 전액 부담하였으나, **급여화 이후** 최초 진단 시(진단초음파) 3만1700원, 추가 검사 시(제한적초음파) 1만5800원으로 **총 4만7500원의 비용을 부담**(총 7만2500원 경감)